

선교 Batho

*주님안에서 문안 올립니다 from 조성수/ 권희숙 (남아공)

*지난 1월부터 3월까지,

이 작은 초등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'바른 복음으로 제자 삼아가는 사역'에 적합한지를 놓고 시간을 보냈습니다.

코로나가 심한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실 안에서도 있었기에 한 반에 12 명의 어린 친구들을 두니 선생들을 포함 모두 편안해했습니다.

이제 그 코로나가 힘을 잃어가는 중에 일상이 거의 회복이 된 요즘
그 12 명의 어린 친구들이 한 반에 있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
한 아이 한 아이의 필요를 잘 돌아 보는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.

서로 도전하기를,

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 개인 개인을 따로 따로 늘 돌보아 가시듯
학교의 구성원 모두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작게라도 본 받아
어린 친구들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돌보고 있습니다.

그래서 저의 세대가 이 학교의 사역에 함께 한다면 그 숫자를 꼭 지키기로 다짐하고
그 한 반, 12 명에 맞는 가르침과 배움의 틀을 찾아 4 월을 맞이했고
더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.

4 가지..

그 시간의 핵심을 교과서에 표시하게 한 후 선생이 사인하고
공책에는 선생의 메모를 따라 적은 것을 선생이 또 사인하고
숙제도 그렇게 매번 확인하는 사인을

그리고 부족한 어린 친구들에게는 수업 후 따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

12 명의 어린 친구들이 한 반에 있으니 매 시간 사인들이 가능한..

코로나가 찾아온 이후 겪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고 싶습니다.

"..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.." (살전 2:7)

"..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.." (살전 2:11)

"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
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.." (살전 2:8)

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엄마와 아빠가 되어
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셨던 것처럼
이 작은 학교의 구성원 모두도 어린 친구들의 엄마와 아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.



*남아공 한국 대사님이 오신 날 같이..



*모든 수업이 끝나는 오후 1 시 30 분부터 20 분간 여러가지의 활동을 하고 집에 가는..

*코로나로 인해 2 년여 만에 만난 박대열 태권도 선교사님 내외분
그리고 동네들의 태권도 블랙벨트들이 모여서 미팅을..

*모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 강건하소서!!
2022 년 4 월 30 일 조성수, 권희숙 올립니다.

The Tentmakers

Sung Soo & Hee Sook Cho
Postnet Suite #3174, Private Bag X82245,
Rustenburg 0300, R.S.A.

+27 83-293-2545 (Cell)

tmrsa123@hotmail.com

www.noblepalms.co.za